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 제작 경험 탐색

박지선
목원대학교 유아교육과

Investigating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 of making teaching materials

Ji-Sun Park

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Mok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16년 1학기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 강의를 듣는 B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 제작 경험을 탐색해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교재교구 제작 교육의 효율적인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교재교구 제작과정은 탐색단계, 계획단계, 제작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재교구 제작 탐색단계에서는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전공서적,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자료와 유치원 참관 경험을 활용하였으며, 계획단계에서는 유아의 흥미 및 수준을 최우선 고려하고, 충분히 자료를 탐색하며 신중하게 제작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단계에서는 제작 방법을 위해 탄탄하게 기초작업을 하는가하면, 초기에 넘쳐났던 의욕에 비해 작업이 진행될수록 기본에 충실하려 하였다. 교재교구를 제작하면서 예비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특별함에 대한 부담감, 유아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상상으로 맞추어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 계획대로 안 될 때의 당혹감 그리고 친구와의 비교 안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꼼꼼한 계획과 철저하게 실행하는 것이 교재교구 제작에서 매우 중요하며, 제작 전과정에서 검토와 점검이 반복되어야 함을 깨달음으로써 효과적인 교재교구 제작을 위한 더 나은 발전방향을 찾아가고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difficulties and understanding of making teaching materials by investigating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 of making such materials. The results of the study would help in the design direction and methods of education for pre-service teachers in how to make materials. A total of 30 university students, who took the cours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al Materials and Research Method' in B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e study. At the exploration stage, the pre-service teachers utilized the teacher guidance of Nuri curriculum, major books, internet materials, and their observation experiences in kindergartens. At the planning stage, they considered chiefly the children's interest and level, explored materials sufficiently, and selected the production method carefully. At the production stage, they performed basic hard work to prevent rework and tended to stick to the basics beyond their initial ambition as the work progressed. The difficulties that they faced, feeling pressured, were making materials based on their imagination without experiencing much from the infants, feeling embarrassed when things did not progress as planned, and feeling a sense of loss when comparing with other friends. Through these difficulties, the importance of precise planning, executing the process thoroughly, and repeatedly checking and reviewing the entire process of making textbooks and materials were realized.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search for a better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teaching textbooks and materials.

Keywords :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Making, Teaching materials, Experience, difficulty

*Corresponding Author : Ji-sun Park(Mokwon university)

Tel: +82-10-9138-2472 email: jisunp@mokwon.ac.kr

Received March 3, 2017

Revised (1st April 14, 2017, 2nd April 24, 2017, 3rd May 1, 2017)

Accepted June 9, 2017

Published June 30, 2017

1. 서론

놀이가 곧 학습과정인 유아들은 교재교구를 통해 동기를 부여받고, 다양한 개념을 습득하며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 추상적 사고와 문자 해독능력이 부족한 유아는 교재교구를 탐색, 조작, 놀이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내면화하고 다양한 개념을 형성하고[1], 교재교구를 활용한 놀이를 통해 활동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하며 더욱 깊이 탐색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므로, 교재교구는 유아의 활동을 더욱 심화시키고, 확대시킨다[2]. 또한, 교재교구는 교사-유아, 유아-유아 간 상호작용의 내용을 결정하는 매개체로서 교육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며[3], 적절하게 갖추어진 교구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4]. 즉 교재교구를 통해 유아들은 교재교구를 활용하여 놀이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발달시키고, 직접 조작하고 만지며 탐색 및 관찰하는 과정에서 신체 및 감각능력을 발달시킨다. 또한, 또래와 함께 교재교구를 사용하며 차례와 규칙, 양보, 배려 등 친사회적 행동을 형성하게 되고,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표현 능력을 기름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하게 된다.

교재교구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로 ‘교구(校具)’는 학습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의미하고, ‘교재(教材)’는 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를 의미한다[5]. 교재와 교구의 사전적 의미는 차이가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유아의 발달특성상 놀이, 학습, 생활의 구별이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교수 및 학습활동을 위한 ‘교구’와 ‘교재’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교재교구 또는 교재·교구로 명명한다[6]. 이는 유치원에서의 교재교구는 놀잇감, 장난감, 교재, 교구, 활동자료, 교수매체, 교수자료 등 다양한 용어와 범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아 중심의 자유선택활동에서 교사 주도 수업에 이르기까지 활용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재교구의 의미를 유치원 현장에서 활용되는 유아들의 활동자료와 수업의 교수자료를 의미한다.

이처럼 유치원에서 교재교구의 중요성을 현장의 교사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발 및 제작의 필요성 역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김정숙, 박진아, 김정민[7]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의 담임교사가 교구를 제작할 시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과의 관련성을 고려사항 1순위로 두고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교재교구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이용하며 발달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있는 것 역시 보고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교재교구를 자체 제작할 때 교사들은 시간부족, 재료구입의 어려움, 제작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제작 대신 구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상품화된 교재교구는 교사제작의 경우 교재교구 제작에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 대비 낮은 견고성이나 내구성 등을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위해 변형을 주거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색상이나 디자인도 매력적이다. 그러나 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특성, 교육적 내용을 잘 파악하기 어렵고 학급 내 유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즉 매력적이고 다채로운 교재교구는 될 수 있으나 교육목표 및 목적에 따른 발달에 적합한 교재교구가 되기는 어려움의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발달에 적합한 교재교구학자나 이론가의 노력보다 교육 현장에서 유아를 가르치고 접하는 교사가 교육적 흐름과 유아의 특성에 대한 민감함을 느끼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을 권고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 교재교구 제작을 위한 여러 어려움이 있어 현직교사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보다 앞서 예비유아교사과정에서부터 유아의 발달수준 및 교육내용 등에 적합하게 교재교구를 선택할 수 있는 시야와 제작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먼저, 예비유아교사시기부터 좋은 교재교구에 대한 기준을 인지해야 한다. 김규수[8]는 교재교구에 대한 평가기준을 여섯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유아의 발달 수준 고려, 둘째,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셋째, 오래 쓸 수 있도록 견고한 것, 넷째,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다섯째,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모서리가 둥그레 처리되어 있는 것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매력적인 것이다. 또한, 교재교구를 제작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9],[10]에는 유아의 연령 및 발달 수준 고려하고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울 수 있으며, 매력적이고 흥미를 줄 수 있고 유아 스스로 활동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며 활용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 달성이 쉽고, 안전하고 견고하며 위생적 그리고 유아가 사용하기에 적당한 크기와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되 최소의 노력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실물 교구를 탐색하고 계획 및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기를 수 있다. 이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과교재연구법의 과목에서 이를 다루고 있으며, 이때 예비유아교사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교재·교구를 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유아교사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예비유아교사들 각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모의수업을 통해 최대한 실제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같이 준비하고 경험함으로써 교사로서의 교육을 준비하고 배운다. 그러나 모의수업과 실제수업의 차이가 크듯이 이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 역시 차이가 크다. 대부분 예비유아교사들은 모의수업을 ‘한번 해보는 수업’[11]으로 여기며 교구 또한 계획한 수업내용을 외현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제와 발달에 맞는 매체선정과 제작에 쏟은 노력은 곧 성적과 연결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12]. 그러므로 단순한 교재교구 제작이 아닌 교재교구를 통한 교육적의도를 외적으로 불러내는 교사의 교수방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예비유아교사에게 필요하다. 허드와 패터슨은 “교사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환경은 매우 중요하며 교사가 유아를 위한 교재교구를 선택할 때 갖는 배려가 어떠한 학습이 일어나게 될지를 결정한다”고 했다[13]. 이에 체계적인 제작 과정이 필요하고, 이 안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효율적인 방향과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교재교구 관련 연구가 이전에는 각 영역의 교재교구가 영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4],[15]가 많았으나 교재교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유치원 현장의 교재교구 활용 및 관리의 실태조사[7], 교재교구의 질 관리의 필요성과 그 대안에 대한 연구[16],[17],[18]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역시 예비유아교사시기에 서부터 교재교구 제작, 관리방법 인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예비유아교사가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가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과정에서부터 효율적인 교재교구를 제작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교육을 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통해 좁게는 예비유아교사시기부터 효율적인 교재교구를 제작과 관리 및 이에 대한

시야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넓게는 예비유아교사가 교사를 준비하는 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므로 이를 다양한 부분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유아교사의 교재교구 제작과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 예비유아교사는 교재교구 제작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6년 1학기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 과목을 수강하는 A시 소재 B대학교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놀이지도’,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동작교육’에서 조별로 모의수업을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수업자료 및 교구를 제작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이 외의 여러 수업 내에서 1과목당 1회 유아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수강 과목과 관련된 현장의 모습과 더불어 유아들이 실제 사용하는 교재, 교구를 연령별, 주제별로 탐색하여 기록화하였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교재,교구를 계획하고 제작해본 경험은 없었으며 조별로 이루어지는 모의수업을 위한 교재교구 제작은 역할을 분담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이 전체적인 제작과정에 심도있게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으로 교재교구 제작을 하도록 하여 예비유아교사 스스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고 부족한지를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 역시 예비유아교사들의 개별적인 수준과 어려움을 파악하여 실행과정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즉, 제작할 교재교구의 선정기준을 세우는 것부터 교재교구를 선정하는 과정과 구체적인 제작 계획과 실행 과정에 대한 전략을 예비유아교사들과 함께 수립하였다.

2.2 연구 절차

연구절차가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주요과정인 교재교구 제작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이 먼저 이루어졌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제작 계획-제작-

평가 또는 활용'[19], [20], [21], [22]으로 제작과정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과정을 더 구체화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어떤 요건들이 교재교구 제작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문제 및 요구 발견'단계부터 시작하여 제작 목적은 물론 교재교구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는 과정까지 넣어 충분히 제작을 위한 준비과정을 가진 후 다른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계획-제작-평가 또는 활용으로 이어졌다 [23].[24].[25]. 이는 계획 이전에 제작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탐색 단계'에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연구절차를 실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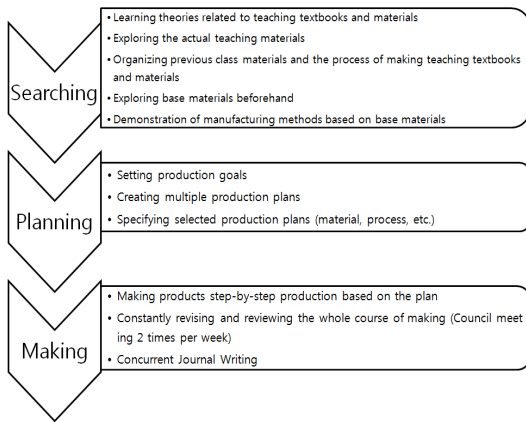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Procedure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교재교구 제작은 탐색단계, 계획단계, 실행단계로 크게 3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위와 같이 도식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탐색과정은 교재교구 제작 실행 이전에 교재교구 계획안 작성을 선행하였고, 이보다 앞서 다섯 가지 준비과정을 실행하였다. 첫째, 교재교구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많이 볼 수 있는 여러 교재교구의 장단점 그리고 좋은 교재교구를 평가하는 평가기준에 대해 학습하였다. 이는 교재교구를 많이 접하지 못한 예비유아교사들이 좋은 교재교구를 구분하는 기준을 인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둘째, 실제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교재교구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재교구를 연령과 주제를 다르게 준비하여 탐색 후 연령과 주제를 추측해보도록 함으로써 연령과 주제에 적절한 교재교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각 교재교구를 활용하여 활동하였을 때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 태도 등에 대해 공

유함으로써 유아기 교재교구의 중요성을 다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이전 수강 과목에서 경험한 수업 자료 및 교구 제작 과정을 정리해보았다. 이는 교재와 교구의 차이와 다양한 제작방법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넷째, 실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규모가 큰 문구점을 3회 이상 방문하여 새로운 재료를 탐색하고 이를 활용한 교재교구를 제작하였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기록하여 공유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재교구 제작 시 견고하게 부착하는 방법, 재료에 따른 적절한 접착제 선택, 바느질이 효율적인 제작 교구 등 다양한 재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초적인 계획을 설립하는 작업을 해봄으로써 효율적인 제작과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계획단계에서는 교재교구 제작목표, 구체적인 방법선택 등을 위해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누리과정에서의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주제와 영역을 선택하여 주어진 양식에 따라 5개의 교재교구 제작 계획서를 작성해보도록 하였다. 선정된 5개의 교재교구 계획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연구자와 협의를 통해 교재교구로써 실효성이 높고 재료선정이나 제작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것을 2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된 교재교구는 스케치를 통해 최대한 형태를 구체화해보고, 필요한 기본 재료, 교구 색깔 등을 정한 후 이를 제작 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교구 제작 계획안 양식은 '유아 교과 교재 및 연구법'[6] 서적을 참고하여 유아교육 전공 교수 2명의 논의 하에 개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사용된 양식은 그림 2와 같다.

Name of Tools		Subject	
Life Theme		Number of Participants	
Area of Nuri Curriculum		Activity Field	
Activity Objectives (Expected effects)			
Activity materials			
Materials for making			
Making methods			
Sketch or Photo (Write down detailed length cm)			
Notice for using materials			

Fig. 2. Making Planning Form for Teaching Material and Tools

각 사항을 작성하면서 교재교구 제작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생각하며 기술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제작 실행 가능한지, 제작 후 유아들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는지 고려해볼 수 있도록 강조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반성적 저널쓰기를 함께 실행하였다. 저널쓰기는 정해진 양식 없이 교재교구 제작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제작과정에서는 계획서를 토대로 단계별로 실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해보고, 매주 2회 협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해야 할 부분을 체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교재교구가 완성될 때까지 저널쓰기를 통해 개별적인 경험을 기록화하였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 4월 첫째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10주간 이루어졌으며, 주자료는 이 기간 동안 예비유아 교사들이 작성한 반성적 저널과 연구자가 예비유아교사들과 협의과정 및 관찰 내용을 기록한 연구노트이다. 수집된 자료의 분량은 A4용지 기준 310장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26]의 질적 자료 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되었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상세하게 3번 이상 정독하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표시를 하거나 메모를 해두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경험으로 1차 범주화하였고 이를 다시 계획과정과 제작과정에서 각각 나타나는 경험으로 세분화하였다. 셋째, 도출된 1차 범주에 따라 1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넷째,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5명을 선정하여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고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내부자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학생당 2회씩 실시하였으며, 면담시간은 3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구자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다섯째, 보완된 범주를 가지고 2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유아교육 전공 교수 2인에게 자료를 검토 받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을 객관화하고 비교·분석하여 자료 해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과정을 거쳤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교재교구의 제작 과정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 제작 과정은 탐색 단계, 계획 단계, 제작 및 수정 보완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경험의 차이가 나타났다.

3.1.1 교재교구의 탐색단계

3.1.1.1 다양한 자료와 경로를 통한 탐색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재교구를 제작하기 이전에 제작할 교재교구를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경로를 통해 탐색하였다. 주로 참고하는 자료에는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전공서적, 인터넷 검색 자료등이 있었다.

사례

강의마다 누리과정 지도서가 부교재처럼 활용되다보니 나는 당연히 누리과정 지도서에서 찾기 시작하였다. 연령마다 생활주제마다 참 다양한 교구가 있었다. (학생 3) 누리과정은 연령으로 나누어져 있고, 주제별로 활동도 자세하게 있어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다. 학과 사무실에 있는 누리과정 지도서를 모두 빌려 관심있는 교구를 찾아 사진찍어 두었다. (학생 5) 예전에 동작교육과 수학교육 강의 중에 교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시는 교구를 떠올리며 책꽂이에 있는 전공 책을 꺼내어 교구를 찾아보았다. 재미있는 교구라고 기억했던 것들이 떠올라 찾아 사진으로 찍어 수집해놓았다. (학생 10)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 탐색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추후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주로 누리과정 지도서와 인터넷 자료를 통해 다양한 교재교구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해 현직교사들이 실제 제작한 교재교구의 사진은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제작과정부터 재료까지 자세한 정보를 주는 경로가 되었고, 누리과정 지도서의 경우 연령별로 자료가 있다 보니 연령별 수준에 대한 고민없이 탐색이 가능하고, 생활주제별로 제시되어 실제 유치원 현장에서 활용되는 자료이다 보니 그 자체로 신뢰가 되었다. 그러나 누리과정 지도서를 개별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 학과 사무실에서 빌려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교재교구 탐색 기준에 대해 예비유아교사들은 활동방법이 재미있어 보이는 것, 색깔이나 형태가 예쁘고 튼튼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3.1.1.1 유치원 참관 경험을 참고로 탐색

교재교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다양한 자료 및 검색과 더불어 중요한 정보를 준 것은 유치원 참관 경험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육봉사 시간을 대부분 유치원 현장에서 보내고 있으며 모든 강의에서 1학기에 1번 이상 유치원을 참관하여 강의 내용을 실제와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

사례

- 참관 수업을 갔을 때 나는 3세반을 참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3세 유아들은 어떤 놀이를 하나 열심히 살렸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 유아들이 다루던 교구가 떠올랐다. 그리고 교구를 조작하던 유아들 모습을 통해 내가 어떤 연령의 어떤 수준의 교구를 생각해봐야하는지 참고할 수 있었다. (학생 10)
- 00유치원에서 지혜반 유아들을 떠올려보고 만 5세 유아들의 수준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학생 11)
- 수업 참관을 갔을 때 참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생각되었던 교구의 틀이 떠올랐다. 어른인 내가 보아도 재미있어 보였다. 나도 그런 교구를 만들 수 있을까 기대와 걱정을 가지고 여러 교구를 찾아보았다. (학생 19)
- 지난 학기까지 참관을 갔던 유치원에서 모두 연령마다 교구가 달랐다. 방법도 달랐고 크기도 달랐다. 이것이 연령의 수준을 알려주는 기준인 것 같아 나는 이런 것을 고려하며 교구를 찾고 있었다. (학생 26)

30명의 예비유아교사 대부분 유아를 실제 경험할 수 있었던 교육봉사 및 참관 경험을 기준으로 교재교구를 탐색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 추후 면담을 통해 알 아본 결과 발달에 대해 강의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에 맞추어 교재교구를 제작해야겠다고 생각해보니 감이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예비유아교사들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유아와 교재교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경험을 통해 유아들이 실제 활용한 교구를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었다.

3.1.2 교재교구의 계획 단계

3.1.2.1 유아의 흥미 및 수준 최우선 고려

예비유아교사들은 충분한 탐색을 통해 유아의 수준 고려가 교재교구 제작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하였다. 좋은 교재교구의 다양한 기준 중에서 유아의 수준 및 흥미 고려는 우선시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것임을 예비유아교사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 학교 도서관에 가서 여러 교재교구 책을 가져와 찾아 보며 대상연령에 적합한 교구, 활동영역에 적합한 교구, 다른 영역과 연계할 수 있는 교구, 유아가 흥미 있어 할 만 한 교구는 어떠한 것인지 찾아보았다. 교구를 단순히 놀잇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구를 통해 아이들이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어떠한 영역과 연계해야 하는 게 적합할지 많이 고민하였다. (학생 1)
- 교구를 찾았을 때 교육적이긴 하지만 심미적인 면에서 부족해 보이는 교구는 펠트와 솜을 사용해 마느질하여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수정을 하였고, 심미적이지만 크게 교육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교구는 어떻게 하면 유아들의 흥미도 끌고 교육적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 (학생 6)
- 교구를 제작함에 앞서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교구가 유아의 흥미를 끌 수 있을지, 내가 맡은 활동영역에 맞는 건지, 다른 영역과 연계가 가능한지,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지 또 교육적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것 같다. (학생 7)

사례에서 제시된 것처럼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재교구가 단순한 활동 자료가 아닌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심미적인 요소보다는 교육적인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교재교구를 계획하며 여기에 다른 영역과의 연계까지 고려하며 통합적인 발달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3.1.2.2 충분한 재료 탐색과 신중한 방법 선택

처음 개별적으로 교재교구를 계획하고 제작하는 예비유아교사들은 교구를 선정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제작과정을 계획하는 것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특히 재료와 제작 방법의 선택은 교재교구의 완성도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을 바탕으로 실제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례

- 문구점에 다시 다녀와 재료들을 탐색해 보니 제작 자료와 제작 방법을 작성할 때의 어려움이 덜 해졌다. 여러 차례에 걸쳐 교재·교구계획안을 작성해보니 교구의 종류도 많고 제작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지 못했던 재료들을 알게 되었고 처음 계획할 때 보다 교구를 선택함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며 교구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 4)
- 가장 접합한 접착제를 고민해보았다. 그리고 학과 사무실에 있는 목공풀, 한지풀, 물풀을 가지고 와서 한지를 붙여보고 한지풀이 나중에 말랐을 때 가장 견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6)

- 금요일 교구 제작 전에 미리 문구점에서 EVA를 사서 가위로 잘라보았는데 5T라 두꺼워서 그런지 약간 밀리면서 잘리고 깔끔하게 잘라지지 않았다...다음 주에 교구 제작 수업 전까지 실험해 보아야겠다. (학생 16)
- 제작 전에 하는 바느질이라 서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홈질, 박음질, 버튼홀스티치, 공그르기를 연습을 하였다. (학생 23)

다양한 재료와 제작방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던 예비유아교사들은 본격적인 제작에 앞서 선행되었던 재료탐색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이는 교재교구를 결정한 이후에도 ‘어떤 재료로 제작하면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통해 더 좋은 교구를 고민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제작방법으로 이어져 충분한 재료 탐색과 신중한 제작방법 선택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이 교재교구 제작 계획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을 직접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었다.

3.1.3 교재교구의 제작 단계

3.1.3.1 재작업 방지를 위한 탄탄한 기초 작업

본격적인 교재교구 제작이 시작되면서 예비유아교사들은 기초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고 여기에 견고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후 작업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이를 위해 꼼꼼하게 초기 작업을 체크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

- 교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초기 작업인데 아주 작은 실수라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고 도안이나 가위 선이나 여러모로 시간이 많이 허비된 것 같다.(학생12)
- 교구를 만들기에 앞서 계획표를 세웠다. 기간 안에 완성하도록 계획을 세워보았는데 처음 세울 때는 ‘급방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막상 계획을 세우고 확인해보니 그리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틀을 먼저 잘 완성하는 것이 교구를 실수없이 잘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틀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소요할 수 밖에 없었다.(학생 27)
- 교구를 만들 때는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드보드지로 밑판을 만드는 것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시간을 소요하였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튼튼한 집을 짓듯이 교구도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튼튼한 교구가 되기 때문이다.(학생 28)

실제 제작 작업이 시작되자 대부분의 예비유아교사들은 소요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많음에 당황하면서도 기초작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마치 집을 짓는 것과 연결지어 건축에서의 기초공사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기에 교구제작 역시 기초작업이 튼튼하게 이루어져야 견고한 교구를 제작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체 제작시간의 많은 부분을 기초작업으로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3.2 넘쳐났던 의욕 충만에서 기본에 충실한 가지치기의 반복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재교구를 계획한 당시 자신만의 특색 있는 교재교구를 제작하고 싶은 의욕 또한 매우 컸다. 예비유아교사들은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움’을 더한 교재교구를 제작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는 재료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제작방법 시도 또한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제작과정이 진행되면서 예비유아교사들은 초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사례

- 교구를 직접 만들어보니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했어도 직접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많았고 더 생각해야 할 부분도 많았다. 그러다보니 계획했던 일정 만큼 교구를 만들지 못 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꼼꼼히 보고 고쳐나가는 나중에 완벽한 교구를 만들 수 있고 다시 수정하는 일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학생 3)
- 나의 계획은 찬란했다. 하지만 무언가 놓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만들기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 알 수 있었다. 나는 정작 꾸미는 것은 고민만 하고 뼈대 역할을 하는 우드락을 어떻게 붙일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안한 것 같다. 집이든 교구든 뼈대가 튼튼해야 하는데...나는 뭐가 더 중요한지 고민을 다시 시작했다.(학생 16)
- 연령을 만 3세로 계획한 교구인만큼 겉면에 여러 가지 촉감을 느끼게 해주면 더 좋은 교구가 될 것 같아 이것까지 계획하였다. 하지만 겉에 붙일 여러 촉감 재료를 자르느라 정작 책의 형태도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다. 나는 다시 이 교구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도 과감하게 촉감은 일단 중단하고 놀이할 수 있는 교구로 먼저 만들기로 하였다. (학생 20)

처음 교재교구를 직접 개별적으로 제작해보는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신의 교구를 ‘완벽’에 닿기 위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완벽한 교구를 제작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더하고 싶었고, 풍성한 요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제작과정이 진행될수록 무엇이 우선순위

가 되어야 하는가에 혼란을 느끼는 경험을 하였으며, 제작하는 교구가 갖는 기본과 옵션의 요소 즉, 추가적인 요소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구분하여 제작순서를 정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처음 제작하는 과정에서 앞선 의욕으로 보여지는 교재교구의 기능을 우선시하던 모습에서 교재교구의 기본 기능에 충실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3.2 교재교구 제작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의 경험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재교구 제작 과정에서 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그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는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깨달음 또한 중요한 경험이 되었음을 나타냈다.

3.2.1 교재교구 제작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어려움

3.2.1.1 특별함에 대한 부담감

개별적인 교재교구 제작 경험이 전무하였던 예비유아교사들은 제작해야 하는 교재교구는 새롭고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이에 재료 선택과정에서부터 제작방법까지 특별함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

기준에 많이 있는 교재교구는 사도 되니까.그런 것들과 다른 내 것만의 새로운 교재교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부담도 많이 된다.(학생 1)
교구를 선정할 때부터 나는 특별한 것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컸다. 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펠트에 바느질은 이 방법밖에 없을까를 고민도 하지만 사실 나는 아직 다들 사용하는 방법도 어렵다. (학생 13)
같은 촉감 책이라도 좀 더 새로운 거를 넣어서 특별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요즘은 나의 모든 생각과 손은 교구를 향해 있는 것 같다. (학생 19)

예비유아교사들은 처음 제작하는 자신의 교재교구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부담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새롭고 특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기본 제작 방법에도 의구심을 갖고 새로움만을 쫓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컸다. 이는 실제 교재교구 탐색 및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오는 것으로 보여졌다.

3.2.1.2 상상으로 맞추어 가는 어려움

유아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유아들이 가지고 활동할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것이 예비유아교사들에게는 어려움이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제작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유아 손에 맞는 적절한 크기, 유아 수준에 맞는 조작 방법, 유아들의 흥미 유발 등은 발달 특성에 대한 강의 내용이나 이전 참관을 통해서서는 어려운 부분이었다.

사례

참관을 갔을 때 나는 만 4세반을 경험하였는데 내가 만드는 교구는 만 5세에 맞추어 제작하다보니 혼란이 계속되었다. 4세와 5세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내가 봤던 유아들의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생각해 보며 해왔으나 역시 생각만으로는 쉽지 않다. (학생 20)
조작 교구이다보니 유아들이 교구를 들고 활동하기에 크기가 적절한지 고민이었다. 교수님과 상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감을 잡았지만 다음은 그림 크기에서 고민이었다. 산 넘어 산이었다. (학생 17)
누리과정에 친절하게도 연령이 적혀있고, 수준도 제시되어 있어 내가 만든 교구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연령의 유아들이 과연 이것을 재미있어 할런지 고민의 연속이다. (학생 13)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예비유아교사들은 누리과정 지도서를 신뢰하고 여기에서 구분된 연령 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는 지도서 안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한 교재교구를 제작할 경우 이해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와 차이를 보이는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예비유아교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보였다.

3.2.1.3 계속되는 시행착오로 인한 좌절감

처음 개별적으로 교재교구를 제작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재료선택에서부터 제작방법까지 어느 한 부분도 쉽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때 예비유아교사들은 당혹감을 경험하였다.

사례

시간 계획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꼼꼼하게 계획표를 만들어서 이것에 맞추어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문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꾸 밀려지게 된다.(학생 9)
하드보드지에 펠트를 붙이고 구멍을 뚫은 후 다시 펠트로 메우면 될꺼라고 예상하였지만 하드보드지와 펠트지

를 함께 놓고 구멍을 뚫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걸 하는 생각이 이것 말고도 이어졌다.(학생 11)
순간순간 그만하고 싶을만큼 자꾸 무언가 꼬이는 것 같다. 실수가 반복되도 다시!다시!를 스스로 외치며 마음을 가다듬었지만 반복되는 실수에 자책감은 이미 하늘로 향했고, 나의 눈과 손에는 굳은 살로 채워졌다... 완성해야 끝이 나고 그래야 내 교구가 된다.(학생 22)

충분히 탐색하였고 계획하였다고 생각했던 예비유아교사들은 계획했던대로 진행하면 무리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진행될수록 예상을 빗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해야 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벗어난 시행착오 앞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이에 반복되는 수정과정을 통해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완성이라는 길 끝에 다다르기 위해 질주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는 스스로 위로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3.2.1.4 상대적인 박탈감

각자 선택하고 계획한 교재교구는 재료와 제작방법 모두 달랐으며, 예비유아교사들은 각자 제작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다름을 점차 차이로 받아들이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사례

나를 포함한 몇 명의 친구들은 운동 교구 생각뿐이고 생활도 교구와 늘 함께하고 있다. 공간시간이면 당연한 듯 빈 강의실에 모여 자기 교구를 꺼내어 만들며 수다를 떠다. 재미도 있지만 늘 모이는 친구들만 보인다. 다른 친구들은 빨리 잘 만들어서인지 아니면 쉬운 교구를 만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웬지 모를 속상함이 밀려왔다. (학생 11)
가위질이 쉽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은 칼로 잘라도 매우 섬세한데 나는 가위로도 어렵다. 아...나만 못하나, 나 교사해도 되나하는 생각까지 밀려온다.(학생 29)
교구가 거의 완성되고 있지만 자꾸 작아지는 나를 발견한다. 열심히 했지만 친구들 것이 완성되어가는 것을 보면 내 것은 초라해보이는 것 같다. (학생 30)

예비유아교사들은 강의시간을 통해 함께 제작을 하다 보니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주위 친구들의 교재교구가 제작되는 과정도 함께 관찰할 수 있었다. 이때, 처음에는 자신의 것과 친구의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작방법도, 소요되는 시간도 다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주위 친구의 교재교구와 스스로 비교하며 ‘내 것이 만들기 어려운 교구인가?’ 혹은 ‘나는 만드는 능력이 부족한가?’와 같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실제로는 다름에서 오는 과정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차이로 받아들이며 어려움을 겪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3.2.2 교재교구 제작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의 깨달음

3.2.2.1 꼼꼼한 계획과 철저한 실행의 중요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재교구 제작과정에서 보여지는 많은 어려움 중 시간 내에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처음 제작하며 경험하는 많은 시행착오로 인해 더욱 그러하였다. 이에 제작과정을 꼼꼼하게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가 교재교구의 완성도를 좌우할 수 있음을 깨닫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

마냥 고민만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았지만 해야 할 작업은 넘쳐났다. 게다가 지난 번 완성했다고 좋아했던 게임판은 뜯어야한다. 아...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먼저 할것과 뒤에 할 것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과 적게 걸릴 것을 나누어 적어놓고 수시 때때로 확인하며 만들었다. (학생 6)
교구를 바로 만들기 전에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상자에 시트지를 붙일 때에도 일부분만 붙여보니 상자가 평평하지 않아 시트지가 울퉁불퉁하게 붙어 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만약 상자의 일부분만 시트지를 붙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붙였다면...이 과정에서 교구를 만들 때에는 시범적으로 교구의 일부분에 먼저 작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 16)

계획은 단순한 시간 나누기가 아닌 제작과정에서 체크해야 하는 주요 사항이나 추가내용 등을 미리 체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작과정의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절차를 미리 계획하고 수정하며 이에 맞추어 실행해야 스스로 제작하고자 하는 교재교구 제작이 가능함을 경험하였다. 모든 일에 있어 계획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획 없이 노를 젓는 배는 허공으로 갈 수 있듯이 교재교구 제작에 있어서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얼마만큼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는가를 모두 담고 있는 계획이 매우 중요하며, 역으로는 실

행이 가능한 계획을 통해 실행으로 이어질 때 잘 짜여진 계획이 될 수 있음 또한 깨달으며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재교구 제작경험을 통해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교재교구 제작 경험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되었음을 나타냈다.

3.2.2.2 검토 및 반복 점검의 필요성

실제 제작이 들어가기에 앞서 충분한 탐색과 계획이 이루어졌기에 예비유아교사들은 서둘러 완성하기 위해 급급한 마음에 작업에서 단계별 직진만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실수와 문제 발생으로 인해 제작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제작과정 내내 검토와 점검이 필요함을 깨달아갔다.

사례

볼링놀이에는 볼링핀, 놀이판 등 만들어야 할 것이 많다보니 마음이 바빴다. 그래서 우선 수가 많은 볼링핀 제작에서부터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총 9개중 3개를 완성하고 서야 완성된 볼링핀이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순간 망연자실한 나는 다 포기하고 싶을만큼 괴로웠다.... 포기도 쉽지 않았다....빠르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점검해가는 과정이 결국 완성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알았다. (학생 22)

다 되어가는 기분과 내가 교구를 만들었다는 뿌듯함이 밀려오던 그때, 점점 일어나고 있는 밑판의 테두리 선이 눈에 띄었다. 다행히 한쪽에만 일어나 양만테이프로 해결할 수 있었다. 늦게 발견되어 모든 테두리가 일어나고 심지어 연결된 밑배경판까지 떼어졌다면....생각만해도 아찔하다. 완성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진정한 완성인 것 같다. (학생 29)

예비유아교사들은 본 연구를 통한 제작 경험 이전에는 완성이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해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 제작과정에서 검토와 점검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완성된 교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는 제작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은 교구를 만드는 작업은 빨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알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어려워던 경험을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16년 1학기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 강의를 듣는 B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 제작 경험을 탐색해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 제작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파악하고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교재교구 제작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재교구 제작과정을 조사한 결과, 탐색단계에서는 누리과정 해설서와 지도서, 전공서적, 인터넷 검색자료 그리고 유치원 참관 경험을 참고로 다양한 교재교구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재교구 제작 시 인터넷 자료와 전공서적을 주로 많이 활용한다는 선행연구[7],[10],[27]와 유사한 결과이며, 이는 자료의 한계와 신뢰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유아들에게 적합한 교재교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유아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경험 그리고 다양한 교재교구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아와 현장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한 예비유아교사에게는 자료를 통한 정보와 참관을 통한 경험이 전문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뢰높은 자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유치원 현장 참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계획단계에서는 먼저, 유아의 흥미와 수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는데 이는 수요자인 유아를 먼저 고려하였고 교재교구를 단순한 놀잇감이 아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교재교구의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구입하는 교재교구가 갖는 문제점이 교육내용과 유아 수준에 적합한 교재교구의 부재[27]라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제작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자료 탐색과 신중한 제작 방법 탐색은 보다 나은 교재교구를 제작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재교구의 교육적 가치 외에도 갖추어야 할 견고성, 안전성, 매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와 같은 조건은 ‘좋은 교재교구’가 갖는 필수요건[8]으로 이를 충분히 파악하고 제작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제작과정에서는 처음 개별적으로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예비유아교사들이기에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큰 만큼 기초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초기에 넘치는 의욕으로 시

작된 다양한 계획에서 교구가 완성되어 갈수록 기본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재교구의 활용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고민이 제작과정 내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교재교구는 전시품이 아닌 유아들이 직접 가지고 활동하며 그 안에서 교육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예비유아교사는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비유아교사의 교재교구 제작과정은 단순한 제작의 의미를 넘어 교육적 필수요소로서의 물리적 환경을 유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를 준비하고 배워가는 과정으로써 의미가 있었으며, 체계적인 과정을 통한 제작경험이 이와 같은 의미를 더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에는 먼저 특별함에 대한 부담감, 상상만으로 유아의 수준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 반복되는 시행착오로 인한 좌절감 그리고 친구 것과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경험이 주를 이루었다. 처음 개별적으로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신만의 교구는 새롭고 특별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으며, 유아를 경험하지 못한 채 자료에 근거하여 상상만으로 유아의 수준을 맞추어 제작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컸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비유아교사시기에서부터 유아에 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교재교구 제작뿐만 아니라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수업매체를 준비하는 등의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11], [28], [29], [30]과 유사하다. 또한, 처음 실행하는 만큼 꼼꼼하게 계획하고 체크하려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실행되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잘하고자 하는 욕구는 비교로 이어져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예비유아교사들이 현장과 유아에 대한 경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대안으로 실재를 경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들의 경험은 어려움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꼼꼼한 계획과 이에 따른 철저한 실행 그리고 검토와 반복 점검의 필요성을 깨닫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주어진 문제로 인해 좌절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움을 갖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 문제해결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학습 모형

PBL(Problem-Based-Learning)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최봉선[31]의 연구가 PBL을 교재교구 연구 및 지도법 수업에 도입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과정과 결과를 보였으며,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깨달음이 체계적인 과정으로 제작과정에서 이루어질 때 예비유아교사의 교재교구 제작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재교구 제작경험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및 유치원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예비유아교사들에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강의 또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재교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제작과정까지 실제 유아를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혼란과 어려움이 컸다. 유아들이 어떤 교재교구에 관심이 많으며, 어떻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각 연령 및 주제에 따라 어떤 교재교구를 현장에서는 활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 참여자가 재학중인 대학과 같이 대부분 수업에 대한 참관은 각 과목에 따라 최소한 1학기 1회 이상 시행되고 있으나 이때 활용되는 교재교구에 대한 분석은 간과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의 현장의 수업 참관을 통해 유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함께 교재교구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므로써 효과적인 교재교구 제작경험이 실행가능하며 이는 곧 교사가 되어서도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교재교구를 조별로 제작하기보다 개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교재교구를 제작해 볼 수 있는 경험은 모의수업을 위한 자료를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각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모의수업은 강의 일정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한, 아직 개별적으로 어려울거라는 예상으로 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개별지도가 불가능하다보니 예비유아교사의 개인차가 커진 채로 이어져 졸업 후 교사가 되었을 때 역시 어려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고 예비유아교사시기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교재교구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도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 연령별 수준에 대한 이해나 교재교구를 통한 활동목표를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는 연령별, 생활주제별로 다양한 활동과 그에 따른 다양한 교재교구를 제시하고 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제시된 교재교구를 탐색하고 직접 제작해보는 경험을 통해 각 연령별 유아 수준과 주제에 따른 목표도달에 적절한 교재교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교재교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교재교구 개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2학년 시기에는 각 과목에 따른 교재교구를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서 발췌하고 제시된 방법대로 제작해보는 방법을 실행하고, 3학년에는 이를 다른 주제 및 연령에 맞추기 위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부분수정을 통해 새로운 교재교구를 개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며 4학년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과 주제에서 활용한 교재교구에 대한 개발과정을 가짐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교재교구 제작능력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대학의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례연구이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연구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자연적인 일반화[32]를 통해 결과 및 결론을 해석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재교구 제작과정을 자유롭게 기술한 자기 보고 쓰기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학생들의 행동이나 사고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널쓰기와 같은 심도깊은 기술과정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교재교구의 제작과정에 초점이 맞춰져서 제작된 교재교구 활용에 대한 연구는 다루지 않았다. 예비유아교사들이 계획했던 목표와 활동내용에 따라 실제 활용이 가능한 교재교구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제작과정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보람, 깨달음 등 다양한 경험을 다룰 수 있는 연구가 실행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M. K. Park, J. A. Um, "Significance of play material experienced by children during free-choice activity tim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0, no. 5, pp. 325-349, 2010.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0.30.5.015>
- [2] S. R. Jung, M. J. Park, H. S. Park, K. R. Kim, *Research and Guide for Teaching Textbook*, Gongdongchae, 2010.
- [3] M. S. Choi, E. O. Ki, W. S. Jang, "Young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according to the complexity of play materials and the period of play for outdoor stand play",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1, no. 2, pp. 87-109, 2012.
- [4]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uri Curriculum Teacher Guide for 3-5 aged Children*, 2013.
- [5]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Dictionary of Korean Language*, Available From: <http://stdweb2.korean.go.kr/>. (accessed Feb. 1, 2017)
- [6] Y. H. Jung, *Research and Teaching Textbook of Children*, Changjisa, 2016.
- [7] J. S. Kim, J. A. Park, J. M. Kim, *A Study on Quality Management of Teaching Materials and Tools for Kindergartens*,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4.
- [8] G. S. Kim, "The outlook and challenges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industr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 pp. 81-85,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1.81>
- [9] J. W. Kim, Y. S. Kim, H. M. Park, *Research and Guide for Teaching Textbook and Tools for Infant and Children*, Yangseowon, 2005.
- [10] D. G. Lee, R. G. Park,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play materials in kindergarten by age, theme and interest center", *The Journal of Humanities*, 22, pp. 131-160, 2005.
- [11] H. J. Cho, D. G. Lee, "Meaning of simulated instruction on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vol. 13, no. 3, pp. 567-587, 2012.
- [12] H. J. Cho, D. G. Lee, "Using ASSURE Model theory to develop a simulated instruction model for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3, no. 3, pp. 83-106, 2013.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3.33.3.004>
- [13] J. S. Jo, D. G. Lee, *Research and Guide for Teaching Textbook*, KNOUPRESS, 2002.
- [14] E. S. Shin, H. K. Park, "The effect of constructive play using block area materials on the children's spacial perspective-taking ability", *Duksung Journal of Social Science*, 12, pp. 11-132, 2007.
- [15] H. K. Park, "The effect of art activity using clay on the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2, no. 2, pp. 229-247, 2012.
- [16] Y. S. Kang, J. H. Park,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 nee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on authentication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2, pp. 2793-800,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2.793>
- [17] K. C. Kim, M. S. Lee,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ccreditation system for instructional materials and equip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4, pp. 2123-2133,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4.2123>
- [18] C. H. Kim, Y. Park, S. J. Yoon,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eaching material and tools management program for kindergarten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6, no. 12, pp. 201-215, 2006.
- [19] Kim, Y. A., Lee, H. S. Creative Teaching Material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Changisa, 2015.
- [20] Seo, H. H. Theory and Practice of Early Childhood Textbooks and Materials, Focused on the Nuri Curriculum. Dongmunsa, 2014.
- [21] Lee, S. A., Lee, C. H., & Park, B. M. Study and Guide of Textbook and Materials of Standard Child Care Course and Nuri Curriculum. Seoul: Changisa, 2013.
- [22] H. K. Kim, Research and Guide for Teaching Textbook, Gondongchae, 2010.
- [23] J. K. Kim, K. J. Lee, J. S. Jo, E. H. Han, Research and Guide for Teaching Textbook, Jungminsa, 2014.
- [24] E. S. Na, E. O. Kim, H. K. Park, Y. I. Yu, J. M. Hong, Research and Guide for Teaching Textbook for Infant and Children, Yangseowon, 2013.
- [25] Kim, Y. J., Kim, J. W. Study and Guide of Textbook and Materials of Infant & Child Education Curricula, Seoul: Yangseowon, 2016.
- [26] Marshall, C., & Rossman, G. B., Preservice teacher use of learning and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vol. 39, no. 3, pp. 83-89, 1999.
- [27] J. S. Kim, J. A. Park, "An analysis of the kindergarten learning materials for free choice activity and outdoor play: manufacture, purchase, and utiliz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5, no. 2, pp. 143-163, 2015.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5.35.2.007>
- [28] D. K. Lee, S. G. Kim, "The Main Feature of Student Teachers' Teaching in Early Childhood Practicum".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3, no. 3, pp. 313-338, 2009.
- [29] H. J. Cho, "Using ASSURE Model theory to develop a simulated instruction model for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Paichai University, 2014.
- [30] J. H. Sung, T. I. Kim, "Analysis of Experience of Kindergarten Pre-Teachers' Lesson Plan Wri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7, no. 6, pp. 449-477, 2013.
- [31] B. S. Choi, "A Study & Teaching Method on the Teaching Aids' Learnig Case by PB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vol. 23, no. 2, pp. 33-54, 2007.
- [32] Stake, R. E.,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1995.

박 지 선(Ji-Sun Park)

[정회원]



- 2014년 2월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대학원(문학박사)
- 2005년 3월 ~ 2011년 12월 : 대전 화랑유치원 교사
- 2015년 9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실습, 교사교육